

• 이사야 26:1-4; 빌립보서 4:4-7

‘참된 평화’를 주제로 두 명의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했습니다. 한 화가는 아주 고요한 호숫가 계곡의 안정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. 다른 화가는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를 그렸는데, 폭포 옆 나무 위의 등지에는 폭포의 우렁찬 소리에도 불구하고 새 새끼들이 고요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. 어느 그림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? 두 번째 그림이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.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소란함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?

화평은 조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. 참 평화는 ‘주를 신뢰하는 것’, 즉 주님과 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(사 26:3-4).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다고 꼭 화평한 것은 아닙니다. 현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‘거짓 화평’을 경계해야 합니다. 화평은 평화의 수고를 통해 옵니다. 고요한 산속뿐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맺어야 할 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.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 한복판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(눅 23:46). 한없이 작은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, 십자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을 맛보게 됩니다(삼상 25:29).

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.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, 우리는 조급해하며 염려합니다. 하나님의 때와 방법보다 내 생각과 기대에 사로잡혀 동요하게 됩니다.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. 그분께 모든 것을 아 되고 맡기십시오.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. 인생의 굴곡과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때, 우리 삶에 화평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.

나는 참된 화평을 누리고
있습니까?

- ① 나의 신앙과 삶에 거짓 화평이 있지는 않습니까?
- ② 하나님께 맡기며 평강을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